

바슐라르의 <감싸기> 개념에 대하여

郭 光 秀
(佛語教育科)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는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토마스 쿤 Thomas Kuhn에 앞서 과학의 단절적인 발전에 주목하여 쿤과 비슷한 과학사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많은 애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학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서이다. 그의 문학에 관한 저작들은 일견 비체계적으로 보이나, 이제 상당히 알려져 있듯이 거기에는 숨어 있는 체계가 있으며 그것은 한 마디로 상상력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일체의 상상적인 소작, 예컨대 문학 이외의 예술 일반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는 과학과 문학·예술 일반, 과학철학과 상상력 이론——이 둘이 한 사람의 학자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많은 바슐라르 애독자들에게 경이롭고도 기이한 느낌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래 많은 바슐라르 연구자들에게 그 기이함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느낌을 해소할 수 있을, 바슐라르의 그 두 측면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보려는 시도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한 연구 시도의 결과의 하나가 우리나라 학자의 한 사람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팔목할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김현의 『幸福의 詩學』인데, 이 조그만 논문은 그러한 시도의 결과의 하나로서의 『幸福의 詩學』을 검토하여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이론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설득력 있게 밝혀져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바슐라르의 그 두 측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김현의 논증을 살펴 보기로 하자.

그 유기적 관계에 대한 김현의 전체적인 규정은 <종합>이라든가 <삼투·상호보족>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철학——공존——상상력 연구——과학철학——상상력 연구라는 전기적 사실의 리듬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듯 완전히 상상력 연구가로 개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경향의 종합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한 증거를 이룰 수도 있다. 과학철학에서 얻어진 성과는 상상력 연구에서 폭 넓게 수용되며, 상상력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과학철학에 섬세하게 적용된다. 그가 아니르스의 작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성과 아니마라고 부르고 있는 상상력은 서로 대립·상호 배제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투·상호보족적 역할을 하는 인간 의식활동의 안팎인 것이다⁽¹⁾

(1) 郭光秀·김 현 共著, 『바슐라르 研究』, 民音社, p.187, 방점, 인용자.

이 <종합>, <삼투·상호보족>이라는 표현의 한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들은 바슐라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김현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여겨지는 <감싸기 envelopement>라는 개념에 마주치게 된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내면성의 신화는 오류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 거기에서 바슐라르 사상의 중요한 감싸기가 이루어진다. 객관화 objectivation의 한 보완적 정신작용으로서의 가치부여 작용 valorisation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²⁾

여기서 <내면성의 신화>라든가 <가치부여 작용>이라는 것은, 파스칼이 말한 바 저 <오류의 스승 maîtresse d'erreur>으로서의, 즉 객관적인 인식의 방해자로서의 상상력의 활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객관화>와 <가치부여 작용>의 관계를 두고 <감싸기>라는 개념은 멀지 않아 또 나타난다:

(...)객관화 현상을 변증법적으로 감싸는 그의 가치부여작용(...)⁽³⁾

<객관화>는 물론 과학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성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치부여 작용>은 위에서 말한대로 상상력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앞서 바슐라르의 두 측면의 유기적 관계를 두고 김현이 말한 <종합>의 성격은 바로 <감싸기>라고 하겠다. 이성과 상상력, 객관화와 가치부여작용 사이에 <감싸기>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정신의 그 두 활동에 관한 이론 역시 <감싸기>를 통해 하나의 이론으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싸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제 1장 「현대과학이 인식론에 미친 영향」의 「왜 현대과학인가?」라는 항목의 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역사적 순서에는 개념하지 않겠다는, 그의 『科學精神의 形成』의 서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의 주장은 그의 과학철학을 꿰고 있는 주장이다. 과학지식의 線條的 축적보다는 모든 과학지식을 어떤 관점 (그것을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밑에서 재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보다 중요하다.⁽⁴⁾

<모든 과학지식을 어떤 관점 밑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필자 스스로 괄호 속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쿤의 패러다임과 비슷한 발상이다. 과학사는 <과학지식의 線條的 축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패러다임들 즉, <어떤 관점 밑에서 재구성>되는 이론체계들의 단계적인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각각 다른 이론체계, 다른 패러다임이고, 그 둘 사이에 선조적인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뉴턴 물리학과 비뉴턴 물리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김현의 주장으로는 그러한 패러다임들 사이의 관계에

(2) 위의 책, p.191. 방절, 인용자.

(3) 위의 책, p.197. 방절, 인용자.

(4) 위의 책, p.139.

대한 생각에 있어서 바슐라르가 쿤보다는 신축성이 있으며, 그 관계를 밝히는 바슐라르의 개념이 바로 <감싸기>라는 것이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비뉴턴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을 <감싼다>고 김현은 주장한다 :

바슐라르 과학사상의 특이성은,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비뉴턴 물리학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뉴턴 물리학의 이론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斷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기하학과 물리학이 전연 과거의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확장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데 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사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 사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포함하는 것이다.⁽⁵⁾

요약하여 보면, 두 패러다임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 패러다임이 전연) 과거의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확장이라는 것, 이것이 <감싸기>이다. 과학사는 <감싸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연속적인 <감싸기>를 바슐라르는 <계속적인 끼워 맞추기 emboîtements successifs>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들 사이의 관계를 혁명으로 보아 절대적인 단절로 여기는 쿤과, 이점에서 바슐라르는 다르다는 것이다 :

바슐라르는 사람들이 흔히 과학적 “위기”나, 과학적 “혁명”이라고 부르는 금세기 초의 과학적 변모를 위기나, 혁명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정신의 형성으로 본다. 위기나 혁명은 과거의 생각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지만, 새로운 정신은 과거의 것을 하나의 인식론적 방해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폭넓게 감싼다. 그것을 또 새로운 정신이 감싸게 될 것이다. 그가 계속적인 끼워 맞추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과학철학은 거기에서 쿤의 『과학적 혁명의 구조』와 갈라진다. 쿤의 파라다임 이론에는 끼워넣기라는 개념이 없다. 끼워넣기라는 개념 속에는, 쿤의 과학철학에 결여되어 있는, 새로운 정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힘이 상정되어 있다.⁽⁶⁾

패러다임들 사이의 <단절>적이고 동시에 <확장>적인 관계라는 이 애매한 <감싸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선은 <감싸기>의 이상과 같은 해명을 받아 들이기로 하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싸기> 개념이 도출된 것은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에서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과학 지식의 발전, 즉 <객관화>의 발전을 해명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의 두 분야를 <감싸기>라는 개념으로 종합하려는 『幸福의 詩學』의 연구 야심으로 볼 때, 우리들은 하나의 문제에 마주치게 된다 : 과학적 지식의 발전 즉 객관화의 발전을 해명하는 <감싸기>가, 달리 말해 과학적 패러다임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감싸기>가 어떻게 객관화와 가치부여작용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가? 또 달리 말해, 과학철학에서 이루어진 개념이 어떻게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 두 분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객관화와 가치부여작용의 관계가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관계, 뉴턴 물리학과 비뉴턴 물리학의 관계와 같은가? 한 걸

(5) 위의 책, p.142. 방점, 인용자.

(6) 위의 책, p.143.

음 더 나아가, <감싸기>의 힘이 결과하는 <끼워 맞추기>를 두고 볼 때, 객관화를 가치 부여작용이 감싼다면, 가치부여작용을 감싸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학지식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전히 새로운 객관화의 패러다임일 것은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부여작용을 감싸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도 알 수 없다. 즉 이 경우에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격, 범주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화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진 개념을 그 범주를 넘어서서 적용시킨 결과이다. 이 경우 필자는 이른바 범주 오류라든가, 外插 extrapolation이라는 것을 범한게 아닐까? 앞서 인용한 대문⁽⁷⁾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내면성의 신화는 오류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⁸⁾라는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 정신의 한 중요한 측면을 상징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그것들이 여전히 객관화라는 정신의 다른 측면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 정신의 그 두 측면은 정녕 인간 정신의 한 측면씩을 이룰 따름이지, 그 한 측면인 가치부여작용이 다른 측면인 객관화를 감싸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측면의 단절을 주장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필자는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인간행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 힘 들 때 그는 상상력 연구로 달려가는 것이며 그것의 가치부여작용으로 인간 행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는 다시 과학철학으로 되돌아온다.⁽⁹⁾

여기에서 그 두 측면은 뚜렷이 분리되어 있고, 다만 그 두 측면이 <인간 행위>의 <총체>를 이루는 서로 다른 요소가 되어 있을 뿐이다. 방금 인용한 말 바로 다음에 <그 끊임없는 왕복 현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복>이라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왕복의 주체가 오가는 두 목적지의 떨어져 있음을 환기한다…….

그러므로 그 두 측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가치부여작용)가 다른 하나(객관화)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종합적인 어떤 전체가 동시에 감싸고 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 것 같다. 그 전체는 위의 인용에 암시되어 있는 바로는 <인간행위>의 <총체>인 것으로 여겨진다. 적어도 이상과 같은 비판적인 검토의 결과로는, 그 두 측면의 관계는 필자가 <감싸기>로 규정하기 전에 쓴 표현인 <종합>, <상호보족>으로 더 잘 묘사될 것 같이 생각된다: <인간행위>의 <총체>에 종합되어 있으나, 그 총체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므로 <상호보족>적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그 두 서로 다른 측면(표면적으로?)이 어떻게 심층적으로 하나로 종합되어 있

(7) 각주 2)의 인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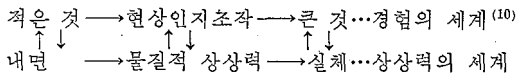
(8) 방점, 인용자.

(9) 위의 책, p.188.

는가? 그런데 바로 이 점—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幸福의 詩學』의 가장 큰 야심이었는데—에 대한 논증이 이 논문 전체에서 가장 실망스런 부분이라고 생각됨을 어쩔 수 없다. 그 점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제 3장 「바슐라르적 콤플렉스의 개념」의 첫 항목, 「精神分析과 現象學에 작용한 세 원칙」에서 ②~⑧에 걸친 부분이다.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그 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무한히 작은 것이 큰 것을 드러내거나 변화시킨다.
- 2) 물질은 에너지이며, 실체는 에너지의 생성의 체계이다.
- 3) 물질은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선 필자는 이 세 원칙을 두고, 그것들이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 두 분야가 통일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사실, 예컨대 1)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경험의 세계>와 <상상력의 세계> 사이의 유추관계를 보여 주는 도표는 그 주장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실 이런 유추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두 세계의 통일적인 관계가 완전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유추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 어떻게 사실과 가치라는 아주 다른 두 분야가 같은 원칙에 지배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서는 그 유추관계는 언제까지나 경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원자물리학에서 그가 얻어 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¹¹⁾ 라는 그 원칙이, 즉 사실 분야에서 이끌어낸 그 원칙이 논리적으로 가치 분야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범주 오류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두 분야의 간극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세 원칙을 각각 밝히는 ②, ③, ④, 그리고 ⑤~⑧ 어디에도 그 유추관계의 근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혹시 필자는 예컨대 신비평 가운데 골드만 Goldmann의 구조발생론적 분석이나 모롱 Mauron의 심리비평에서 문제되고 있는, 작품의 구조와 사회 또는 무의식의 구조와의 상동적 homologique 유추관계를 생각하고, 이 경우에도 그런 유추관계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일견 유추관계만을 드러낸 듯이 보이지만, 기실 그것이 설명관계가 되어 있다는 한(작품은 사회나 무의식의 결과이다), 명시적으로든 암암리든 작품이 사회적인 것이거나 무의식적 인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그러한 전제가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나 무의식이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경험의 세계>

(10) 위의 책, p.192.

(11) 위의 책, p.189.

와 <상상력의 세계> 사이의 유추관계를 두고서는 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러한 근거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유추관계가 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⑧에 가서 그 두 측면의 종합에 대한 시사가 다시 나온다:

그가 대립시키고 있는 사고/본능, 사실/꿈, 경험/상상은 그 어느 것도 그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그가 중간지대라고 부르는 몽상의 지대 속에 흡수된다.⁽¹²⁾

그러나 ⑧에서 이런 종합의 결론에 이르게 한 ⑥, ⑦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 경우에도 대립되는 그 두 측면이 심층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립이 그 두 측면을 즉, 객관화와 가치부여작용을 서로 견제케 함으로써 그 둘의 활동에 균형을 이루어 주고 있을 따름이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그 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을 뿐, 그 둘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게 된 것은, 즉 그 둘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로 역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가치부여의 네 관점과 그것의 믿음 상태는 바슐라르가 가치부여 작용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감시surveiller하고 있다는 한 증거이다. 가치부여는 심리적 현상이며, 그것이 광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객관화, 혹은 합리화는 지성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구별을 발견해 낼 수 있다.⁽¹³⁾

그러므로 앞 인용에 나오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두 측면의 경계 점, 그리고 몽상이란 그 균형 상태를 깨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상상 즉 <광태에 떨어지지 않>은 상상일 뿐이지, 그 두 측면이 하나가 된 상태는 아닐 듯 싶다. 적어도 필자의 논증을 헤쳐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 역시 <구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상으로 보아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 객관화와 가치부여작용은 필자의 종합적인 연구 노력 가운데서, 필경, 그 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의 종합적 통일도 이루지 못했고, 그가 바라는 감싸기적인 통일은 더더구나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幸福의 詩學』에서 우리들은, 바슐라르 사상의 그 두 측면에 대한 연구를 그냥 물리적으로 붙여 놓기만 함으로써 바슐라르 사상 전체를 조망하려했다는 인상을 받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幸福의 詩學』에서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짓기 위해 제시된 <감싸기> 개념이, 필자가 실제에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 품고 있는 듯한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구체적으로 예시된 그 관계는 일종의 상동적 유추관계로서 그 근거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추관계가 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실 <감싸기> 개념에 대한 해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필자의 오독에서 비롯된

(12) 위의 책, p. 204.

(13) 위의 책, p. 203. 방점, 인용자.

그 문제는, 필자 자신 스스로의 해명의 미진함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호도되고 만 것이다. <감싸기> 개념을 해명하는 대문 전체를 앞서 인용한 바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바슐라르의 <감싸기>는 쿤의 패러다임의 경우와 같이 감싸는 이론과 감싸이는 이론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¹⁴⁾ 전자가 <전연(후자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확장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¹⁵⁾한다는 모순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쿤의 패러다임이 논리적으로 더 쉽게 이해된다고 하겠는데, 이와 같은 <감싸기>의 해명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는, 바로 그 모순이다. 이 모순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 밖에 없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귀납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현대사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현대사상은 과거의 것을 확장·포함하는 것이다.>⁽¹⁶⁾

우선 <과거의 모든 생각(이) 그것 나름의 이유를 갖는>다는 다분히 예지적인 명제, 가치 판단적인 명제가 연역 즉 논리적 추론과 관계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 오류의 함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점은, 앞서고 뒤서는 두 과학적 패러다임의 관계가 <귀납적 관점에서는 (전자가 후자와) 단절되어 있지만, 연역적 관점에서는 (후자가 전자를) 확장·포함>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귀납에 의해 이론을 수립하고 연역에 의해 그것을 검증에는, 일반적인 과학적 탐구 과정을 연상시킨다. 귀납을 통해 법칙을 세우려면 귀납을 위한 경험적 관찰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는 법이고——왜냐 하면 관찰 대상은 무한 수이니까——어느 순간 귀납적 법칙으로 뛰어 넘어야 한다. 즉 관찰과 그것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더라도——법칙 사이에는 반드시 단절이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역을 통해, 관찰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에 대해 그 법칙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적 탐구 과정이고, 따라서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 패러다임 사이의 추이 과정이 이렇게 설명된다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특별한 뜻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쿤이나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이 독창성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싸기>에 대한 위와 같은 해명은 그 모순의 문제점을 앎고서 미진한 채로 남아 있다.

만약 바슐라르 자신이 이런 미진한 해명 상태로 <감싸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 연구자는 그러한 미진한 해명 상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 필자의 위의 해명에 붙어 있는 각주 표시를 따라, 그 해명의 근거가 되어 있는 바슐라르 저서의 참조처를 찾아 보면, 우리들은, 기실 바슐라르 자신은 그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의 위의 해명은 바슐라르 텍스트에 대한 오독이 야기시킨 것이다. 필자는 아마 réduction(환원)을 déduction(연역)으로 잘못 읽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의 참조처는 『新科學精神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의 p.46인데, 해당 부분은 다

(14), (15), (16), 위의 책, p.142.

음과 같다 :

따라서 뉴턴의 체계와 아인슈타인의 체계 사이에는 절친적인 추이가 없다. 지식을 축적하고 계속 에 있어서 주의를 더하고 원리를 약간 수정함으로써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완전히 새롭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의 사상에서 상대성 이론의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초월적인 귀납 induction transcendante을 따라가는 것이지 범위를 확대하는 귀납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러한 귀납이 있는 다음에, 환원에 의해 par réduction 뉴턴의 과학을 되찾을 수는 있다. 뉴턴의 천문학은 따라서 결국 아인슈타인의 범(凡) 천문학의 한 특별한 경우이며, 그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로바체프스키 Lobatchewsky의 범기하학의 한 특이한 경우인 것과 같다. (17)

집작컨대, 귀납에 대구적으로 연역을 연상하고 réduction을 déduction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귀납에 단절을 뜻할 수 있는 <초월>이 바로 대응되어 있고, <환원>에 <확장·포함>(필자의 표현)의 뜻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아인슈타인의 범천문학>), 이 집작은 틀림 없을 듯하다. 집작을 한 발짝 더 밀고 나아가 이 오독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필자가 귀납·연역에 의한 과학 탐구 과정은 알고 있었을 터이니, 기실 이 지식이 <감싸기>의 <단절>과 <확장>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는 그에게 그 오독을 잠재의식적으로 부추긴 게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오식(déduction을 réduction으로 잘못 식자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필자의 오독이 오독이 아니라 그 오식을 넘어서 바슐라르의 참 뜻을 헤아렸을 가능성도 가정할 수 있겠으나, 그 가정은 위의 인용 부분의 앞 문장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다 :

사후에야, 즉 단번에 상대성 이론의 사상 가운데 자리를 잡은 다음에야, 상대성 이론의 천문학적 계산 속에서 뉴턴 천문학에 의해 제공된 수치 결과를——절단과 포기를 통해——되찾게 되는 것이다. (18)

<절단과 포기>는 바로 환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p. 46의 기타 부분, 그리고 p. 45, p. 47를 모두 살펴 보아도, déduction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는다…….

서두에서 말한 바 있지만, 『幸福의 詩學』의 연구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팔목할 만하고, 우리나라의 불어불문학 같은 일천하고 연구층이 얇은 외국학계에서 본국 학자들 사이의 큰 쟁점에 대한 이와 같은 도전을 보는 것은, 정녕 즐거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쨌든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과 상상력 연구의 종합은 김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고, 그 노력 가운데 그가 제시한 <감싸기> 개념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감싸기> 개념은 다른 하나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 아쉬움 없이 해명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하여——누가 알랴!——바슐라르의 그 두 측면의 종합도 그렇게 완전히 해명된

(17) Bachelard,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 46 방점, 인용자. 拙譯.

(18) 위의 책, p. 46. 방점, 인용자.

<감싸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參考書誌目錄

郭光秀·김현, 『바슐라르 研究』, 민음사.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U.F. 『空間의 詩學』(拙譯本), 민음사,

Le Nouvel Esprit Scientifique, P.U.F.

V. Therrien, *La Révolution de G. Bachelard en Critique littéraire*, Klincksiek.

Résumé (佛文 요약)

Dans les études bachelardiennes, chacun le sait, le problème le plus curieux est: comment on peut réconcilier les deux aspects apparemment tout à fait différents des recherches de Bachelard: la philosophie des sciences et la théorie de l'imagination. *Haingbog Eui Sihag* (*La Poétique du bonheur*) de KIM, Hyeon est le premier et, pour le moment, unique essai de résoudre ce problème qu'on ait vu paraître en Corée.

La contribution la plus importante de Kim aux études bachelardiennes, est peut-être d'avoir trouvé le concept de *l'enveloppement* dans la philosophie des sciences de Bachelard. Tout le monde sait que Bachelard et Thomas Kuhn s'accordent pour affirmer la thèse selon laquelle le développement des sciences n'est pas linéaire, mais se fait par bonds, d'une manière discontinue. Mais ils divergent, selon Kim, sur la nature de ces bonds. Alors que chez Kuhn cette discontinuité est une rupture totale, supposant un changement *révolutionnaire* d'un paradigme à l'autre, elle est, chez Bachelard, une rupture qui ne serait pas aussi totale. Chez Bachelard, selon lui, un paradigme nouveau <enveloppe> l'ancien, de sorte que le premier, bien que tout à fait différent du second, le garde toujours en lui. C'est là le concept de l'enveloppement qui rendrait compte de l'histoire bachelardienne des sciences.

Ce qui est intéressant, c'est que Kim recourt à ce concept de l'enveloppement pour lier d'une manière essentielle la philosophie des sciences et la théorie de l'imagination de Bachelard. Selon lui, celle-ci <envelopperait> celle-là; la valorisation qui est l'activité de l'imagination dans l'imaginaire, l'objectivation qui est l'activité de la raison en sciences.

Or, Kim ne fournit aucun fondement pour justifier l'emploi du concept de l'enveloppement tiré de la philosophie des sciences à la relation entre celle-ci et la théorie de l'imagination. Il nous semble que c'est justement ce fondement qu'on devrait rechercher pour lier les

deux aspects de la pensée de Bachelard.

D'autre part, l'explicitation de Kim du concept de l'enveloppement est déjà problématique: logiquement, elle n'est pas très facile à comprendre, parce que l'enveloppement, selon elle, est tout en même temps rupture et continuité, identité et différence. Pour expliquer cette contradiction, il se contente de dire simplement que un paradigme nouveau se sépare radicalement de l'ancien du point de vue de l'induction, mais du point de vue de la déduction, que le premier étend et comporte le second.

Mais malheureusement cette curieuse explication nous laisse rester toujours sur notre faim. Car ce qui est ici en question, c'est la naissance d'un paradigme nouveau de l'ancien; et non pas la supposition d'une hypothèse par induction et sa vérification par déduction dans les recherches en général dans les sciences: Ce mécanisme général des recherches scientifiques se trouve en acte aussi dans les recherches dans un même paradigme. Si Bachelard lui-même s'était contenté de cette curieuse explication, on devrait justement lui soulever la question à lui-même. Mais en vérifiant ce qu'a dit Bachelard, et dont Kim tire son argument (*La Formation du nouvel Esprit scientifique*, p. 46), nous constatons que Kim a mal lu le texte: il a pris *réduction* pour *déduction*.

Ainsi, nous constatons finalement que les efforts gigantesques faits par Kim pour réconcilier les deux aspects différents de la pensée de Bachelard n'ont pas abouti à un résultat bien convaincant. N'empêche que nous devrions le féliciter de ces efforts, puisqu'ils sont justement gigantesques.